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金三鎮

韓國美容教育 教科課程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Korea Cosmetology Education Curriculum

2002年12月 日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學專攻

金 珍 洙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金三鎮

韓國美容教育 教科課程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Korea Cosmetology Education Curriculum

위 論文을 패션藝術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學專攻

金 珍 洙

金珍洙의 패션藝術學碩士學位 請求論文을 認定함

2002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_____인

審査委員 _____인

審査委員 _____인

<국문초록>

韓國美容教育 教科課程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 金三鎭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學專攻 金珍洙

본 연구는 전문대학의 미용교육 교과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그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미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한국에서의 근대적인 미용교육의 시작은 1928년 11월에 최초로 설립된 「경성미용학교」에서 출발한다. 1933년 3월 초순 오엽주(吳葉舟)의 「화신미용실」 개설을 계기로 한국 미용계는 혁신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해방 이후 김상진(金翔鎭)이 「현대미용학원」을 설립하여 미용교육의 기초를 다져갔고, 권정희(權貞姬)는 「정화고등기술학교」를 설립하여 육성 발전시켜 나갔으며, 임형선(林亨善)도 「예림고등기술학교」를 설립하여 미용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갔다.

한국에서 오늘날과 같은 미용사면허제도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이용사 및미용사법」이 제정된 1961년 이후이다. 미용사면허제도의 도입으로 미용교육기관은 비로소 면허시험을 기준으로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991년 부산의 「동주여자전문대학」과 강릉의 「영동전문대학」에 국

내 최초로 미용관련 학과가 개설되면서 전문대학 미용교육시대의 문을 열게 되었으며, 미용학과는 꾸준한 인기 속에 발전을 거듭하여 1997년에는 18개 학교로, 1998년에는 29개교이던 것이, 2002학년도에는 60개교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미용교육의 열풍은 전문대학에 머물지 않고, 4년제대학의 정규학과 설치로, 그리고 대학원 석사과정의 설치로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마침내 2000년 3월에는 부산미용고등학교가 개교함으로써 고등학교 미용교육시대까지 문을 열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이들 미용교육기관의 교육과목을 보면, 대체적으로 헤어미용, 피부미용,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세분화·전문화 과정을 겪고 있으나, 아쉽게도 이러한 교육과정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전문대학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아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로, 교육목표상의 문제다. 전문대학이 표방하는 미용교육목표는 대체적으로 “능력과 소양을 갖춘 전문 미용기술인 양성” 및 “다양한 미용기술 습득”이 주가 되고 있다. 또한 21세기를 향한 전문화된 국제적 감각과 특히 여성 인력의 양성을 위한 부분, 그리고 과학적 이론에 근거한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대학과정을 마친 미용인이 미용지도자로 발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영자로서의 관리 능력 및 자질 함양을 목표로 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전문대학에서는 그러한 표현이 언급되지 않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미용의 궁극적인 목적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간의 심미적 추구를 목표로 하거나, 예술적 소양의 함양을 목표로 할 필요도가 있음에도 이러한 목표를 정한 학교가 드물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로, 학과명칭에 관한 문제다. 전문대학의 학과 명칭중에는 「미용과」

또는 「미용예술과」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헤어미용전공」을 표방하는 명칭, 「피부미용계열」 또는 「피부미용과」 등에서처럼 「피부미용전공」을 표방하는 명칭, 「코디메이크업전공」 또는 「향장보건계열」 등에서처럼 「메이크업전공」을 표방하는 명칭 등 다양한 명칭을 갖고 있으며, 그 체계 또한 학부제와 전공제, 그리고 단일학과제 등 다양한 실정이다. 그런데 이들 학과를 졸업할 경우 동일하게 「미용사면허」가 부여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일견 전문대학은 토털미용 교육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과명칭을 다양하게 표시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로, 교과목 명칭에 관한 문제다. 교과목 명칭도 동일한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표준화되지 아니한 채 학교마다 차이를 두고 있어 혼란을 보이고 있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모발미용학」과 「두발미용학」, 「스캘프&헤어케어」와 「두피와두발관리」, 「헤어세팅및업스타일」과 「헤어세트」 또는 「업스타일」 등의 이음동의어(異音同義語)를 사용한 과목명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넷째로,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의 기준이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전공필수과목으로 채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전공선택과목이 되고 있는 등, 전공필수와 선택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다섯째로, 주당 교육시간의 차이에 따른 문제가 있다. 동일한 실기과목인데도 일부학교에서는 2학점으로 이론1시간, 실습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다른 학교들에서는 3학점으로 이론2시간, 실습2시간으로 구성되는 등 일정한 표준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하

는 것이다.

첫째로, 현행 전문대학에서의 미용교육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는 미용지도자 양성에 있음을 교육목표상에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기능위주의 교육목표에 예술적 소양의 함양도 포함시킴으로써 '기술로서의 미용'이 아닌 '예술로서의 미용'으로 승화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 학과명칭을 교육과정의 내용과 일치하게 정비해야할 필요가 있다. 헤어미용, 피부미용, 또는 메이크업을 구분하여 전공별로 각각의 교과과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학과명칭도 그 교과과정 내용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준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교과목 명칭의 표준화도 절실히 요청된다. 적어도 전공과목에 대해서는 과목명을 통일해야 할 것이며, 학계의 다양한 연구과정을 통해 표준이 되는 교과내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전공필수과목에 대해서는 각각의 전공별로 일정한 단위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간에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교육시간수에 관해서도 학교간에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로, 나아가 학제간의 교과과정의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즉, 학원 및 고등기술학교에서의 교과과정과 고등학교에서의 교과과정, 그리고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 대학원과정 등 각각의 학제별 수준에 부합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목 차

제1장 서 론	1
I. 연구의 목적	1
II. 연구방법 및 범위	3
제2장 미용교육 커리큘럼 실태	5
제1절 우리나라의 실태	5
I. 미용교육의 역사	5
II. 미용관련 학과 도입과정	8
III. 미용학과 커리큘럼	14
IV. 대학 이외 미용교육기관의 커리큘럼	26
제2절 외국의 실태	32
I. 미국	32
II. 일본	35
III. 독일	37
제3장 우리나라 미용교육 커리큘럼의 문제점	38
제1절 교육 목표상의 문제	38
제2절 교육과정상의 문제	42
I. 교육과정 구성상의 문제	42
II. 교양과정에 관한 문제	44
III. 전공과목에 관한 문제	45
제3절 졸업 후 자격취득 및 진로에 관한 문제	46
I. 취득자격증에 관한 문제	46
II. 졸업 후 진로에 관한 문제	48

제4장	우리 나라 미용교육 커리큘럼의 개선방안	50
제1절	교육목표상의 개선방안	50
제2절	교육과정상의 개선방안	52
I.	교양과정	53
II.	전공과정	55
III.	선택과목	56
제3절	미용관련 학과의 발전방향	57
I.	미용관련 전공의 전문화·세분화	57
II.	현장 교육의 강화	57
III.	산학협동의 활성화	58
IV.	계속 교육의 확대	59
제4절	면허 또는 자격취득에 대한 개선방안	61
제5장	결 론	63
ABSTRACT	65
참 고 문 헌	66

제 1 장 서 론

I. 연구의 목적

1991년, 전문대학에 미용과가 설치된 이래 실용학문으로서의 미용학은 전문대학의 인기학과로서 그 성가를 높여 왔다. 2002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60개 대학 미용관련 62개 학과에서 모두 8,294명을 선발¹⁾했을 정도로 한국 대학에서 미용학이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을 목도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미용교육의 첫 걸음은 멀리 일제 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기의 대표적인 미용사로는 1933년 3월 초순, 일본에서 영화배우로 활약하다가 일본에서 미용을 연구하고 돌아와서 경성의 종로에 있는 화신백화점에서 화신미용실을 개설한 오엽주(吳葉舟)가 있으나, 최초의 미용학교로는 1928년 11월에 설립된 경성미용학교가 있었다. 그 뒤 해방 이후에 김상진(金翔鎭)이 「현대미용학원」을 설립하면서 미용교육의 틀을 다져가기 시작하였으며, 「정화고등기술학교」를 설립한 권정희(權貞姬)와 「예림고등기술학교」를 설립한 임형선(林亨善)이 미용교육의 선구자가 되어 기울인 노력은 한국 미용사에서 잊을 수 없는 기록이 아닐 수 없다.

한국 미용교육의 체계화는 미용사면허제도를 도입하고, 면허시험을 실시하도록 제도화한 1961년의 「미용사및미용사법」 제정이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용사 면허시험의 과목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미용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게 된 세계화 추세는 미용의

1) 2001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미용관련학과 입학정원이 7,861명이었으나, 2002학년도에서는 433명이 증가하였다.

[인터넷 <http://www.hairword.co.kr/Education/education1.htm>]

급속한 발전을 촉발시켰으며, 나아가 미용의 전문화된 지식과 보다 세련된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가 일로에 오르면서 전문대학에 미용과가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전문대학에서의 미용교육은 단순히 미용인력을 배출한다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미용기술의 전문화와 세계화라고 하는 보다 큰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과명칭도 미용과,²⁾ 피부미용과,³⁾ 뷰티디자인과,⁴⁾ 코디메이크업과,⁵⁾ 메이크업코디과,⁶⁾ 멀티뷰티코디네이션과,⁷⁾ 뷰티코디네이션과⁸⁾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대학에 따라서는 계열로 운용되기도 하고, 헤어, 메이크업, 피부관리 등 세부전공으로 나누어 설치한 곳도 있을 정도로 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4년제 대학교들도 광주여자대학교가 미용과학과를 설치한 것을 필두로 본격적인 미용관련 학과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미 몇몇 대학원에서도 미용관련 석사학위자가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미용교육이 고학력화하고 있는 현상은 미용에 대한 가치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미용지도자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미용계의 장래를 밝게 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이 미용교육에 보다 높은 학문적 가치를 부여하는 한편, 실용예술로서의 미용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미용관련학과의 교육과정 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데도 불

- 2) '미용과'라는 학과명칭은 영동전문대학, 동남보건대학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 3) '피부미용과'라는 학과명칭은 동우대학, 경북대학, 동원대학, 수원여자대학, 진주보건대학, 창원전문대학, 경도대학, 구미1대학, 서라벌대학, 선리대학, 안동정보대학, 광주보건대학, 동강대학, 대전보건대학, 우송정보대학, 대동대학, 부산여자대학, 춘해대학, 삼육보건대학, 경인여자대학, 광양보건대학, 나주대학, 목포과학대학, 성화대학, 순천청암대학, 전남과학대학, 정인대학, 제주한라대학, 청양대학, 충청대학 등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 4) '뷰티디자인과'는 거창전문대학, 대경대학, 안산공과대학, 제주관광대학, 주성대학, 진주전문대학 등이 사용하고 있다.
- 5) '코디메이크업과'라는 명칭은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 여수공업대학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 6) 대원과학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다.
- 7) 대구미래대학에서 사용하는 명칭이다.
- 8) 대구보건대학에서 사용하는 명칭이다.

구하고, 아직 학계는 그와 같은 시대적 요청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나아가 졸업생들의 진로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즉, 대학에서의 미용교육과정이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시험의 내용과 달라서 졸업생들이 미용교육 지도자로서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곧바로 현업에 투입되지 못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대학에서의 미용교육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미용교육의 교과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그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미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논문의 목적을 두고 있다.

II. 연구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은 미용관련 학과를 설치한 전국의 2년제 대학중 20개 대학⁹⁾을 대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교과과정을 출력한 후 분석 검토하였으며,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의 교과과정도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료를 출력하여 비교·분석·검토하는 문헌적 비교분석 방법을 택하였다.

그리하여 제2장에서는 미용교육 커리큘럼의 실태를 분석하였고, 제3장에서는 우리 나라 미용교육 커리큘럼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9) 이 논문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대학은 다음과 같다. : 경도대학, 경북대학, 경인여자대학, 광양보건대학, 광주보건대학, 구미1대학, 담양대학, 대동대학, 대전보건대학, 동남보건대학, 동우대학, 부산여자대학, 삼육보건대학, 선린대학, 안산공과대학, 강릉영동대학, 우송정보대학, 원광보건대학, 전주기전대학, 제주한라대학, 혜천대학

우리 나라 미용교육 커리큘럼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 미용교육과정의 개선책을 지적함으로써 향후 대학에서의 미용관련 학과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제 2 장 미용교육 커리큘럼 실태

제 1 절 우리 나라의 실태

I. 미용교육의 역사

한국에서의 근대적인 미용교육의 시작은 1928년 11월에 최초로 설립된 「경성미용학교」에서 출발한다.¹⁰⁾ 일제강점기인 당시에 직업학교로서의 미용학교가 설립되었다는 점은, 미용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했음을 입증하는 반증이기도 하다.

1933년 3월 초순에는 일본에서 영화배우로 활약했던 오엽주(吳葉舟)가 일본에서 미용을 연구하고 돌아와서 경성의 종로에 있는 화신백화점에서 「화신미용실」을 개설하였는데, 당시 미용실은 요금이 비싸 주로 기생과 여염집 부인, 여고사, 졸업한 처녀 등이 이용하였다. 특히 1930년대 이화학당 학생들이 단발하기 시작하면서 서울뿐 아니라 지방의 젊은 여성들까지도 미용실 출입이 빈번해졌다. 일본에서 들어온 히사시가미(일명 뽕머리)가 유행하였고, 퍼머도 하였다.¹¹⁾

해방 이후에는 김상진(金翔鎭)이 「현대미용학원」을 설립하면서 미용교육의 기초를 다지기 시작하였으며, 권정희(權貞姬)는 「정화고등기술학교」를 설립하여 육성 발전시켜 나갔으며, 임형선(林亨善)도 「예림고등기술학교」를 설립하여 미용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갔다.

10)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2000, p.315

11) 상계서, p.315

그러나 미용사면허제도가 입법으로 처음 도입된 것이 1961년도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표준화된 미용교육이 시작된 시기는 1960년대로 보는 것이 옳다.

즉, 미용사면허제도를 규정한 「이용사및미용사법」이 1961년 12월 5일 법률 제798호로 공포됨으로써 미용사관련법이 햇빛을 보게된 것이다.¹²⁾ 미용사 면허요건을 정한 동법 제3조는 “1.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이상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2.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양성기관에서 2년이상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3. 이용사 및 미용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외국에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호의 고등기술학교 수료자에 대하여는 학과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제2호와 제4호에 대하여는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영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¹³⁾

즉, 동법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고등기술학교를 지정하도록 하여 그 교과과정을 정비하였으며, 2년과정의 미용사 양성기관도 설치하여 가르치게 하고, 미용사자격시험에 관한 사항도 규정됨으로써 한국의 미용교육은 본격적인 체계화과정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12) 이한웅, “美容師免許制度 改善方案에 대한 提言,” 한국미용학회 포럼, 2000.12, p.8 : 국회에 최초로 ‘이용사및미용사법’이 제출된 것은 제5대 국회 때인 1961년 2월 16일이었다. 당시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은 1961년 5월 3일 회기불계속으로 인해 폐기되었다. 이 법안에서 미용업을 “파마넨트웨이브, 結髮, 美顔, 化粧 等の 方法에 의하여 容姿를 美麗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미용사면허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소정의 과정을 이행하거나 미용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부여하도록 하였으나, 이 법안은 정치적 격동기에 제출되었던 탓에 제대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폐기되고 만 것이다. 최초의 미용관련 법은 5·16 군사정권에 의해 입법되었다.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를 구성한 군사정권은 1961년 11월 8일 최고회의 문교사회위원장이 ‘이용사및미용사법’ 법안을 제안하여 최고회의 제69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후 의결로 제정되었다[이한웅].

13) 상계자료, p.8

미용교육은 고등기술학교와 양성기관 뿐만 아니라 미용학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이 사실이다. 2002년 현재 전국에 미용학원은 423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¹⁴⁾되고 있으며, 이들 학원에서는 미용사자격시험에 기준을 둔 기초과정과 미용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과정 등의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그 뒤 1986년 5월 10일 「공중위생법」이 공포됨으로써 「이용사및미용사법」은 동년 11월 10일 폐지되었으며, 1999년 2월 8일에는 「공중위생법」 규정사항중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법인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미용과목이 전문대학에 도입된 것은 1991년의 일이었으며, 전문대학의 미용학과를 졸업한 자들에게 무시험으로 면허를 부여하기 시작한 것은 1993년 12월 27일 개정된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비롯되었다.

14) <http://www.beautyfashion.co.kr>에 소개된 학원의 수가 423개다.

II. 미용관련 학과 도입과정

1. 전문대학의 발전과정

한국 전문대학의 역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교육법으로 규정한 초급대학의 발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뒤 1963년에 법제화된 「실업고등전문학교」가 있었으며, 1970년부터는 그 명칭을 「전문학교」로 개편하여 운영해 오다가, 1979년부터 「전문대학」으로 개편하였고, 1998년부터는 학교명칭이 자율화되어 「대학」시대의 문을 열게 된 것이다. 이하 전문대학의 발전과정을 개관한다.¹⁵⁾

(1) 초급대학 시기(1948~1963)

초급대학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제정 공포된 교육법 제 109조와 제110조에 의거 4년제 대학과 함께 설립되었으나 1960년대에 5년제 실업고등전문학교가 신설된 이후에도 양적증가를 계속하여 왔다. 초급대학은 중견직업인 양성을 위한 단기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였다.

당시 초급대학은 6년제 중학교졸업자, 그 후 고등학교 졸업자를 입학자격으로 하는 2년제 대학으로서 완성교육 또는 4년제대학의 전반기 과정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었다.

초급대학의 설립현황을 연차적으로 살펴보면, 1948년 7월 30일에 공립인 공주사범대학이 초급대학으로서 최초로 발족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설립 운영되어 왔지만 일부는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하고 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

15) 자세히는 周明鉉, “韓國 專門大學의 發展方案에 關한 研究”, 단국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p.4-12 참조.

학교 등으로 개편되는 등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꾸준히 명맥을 유지하여 오다가 1979년 1월 1일을 기해 종래의 초급대학, 전문 학교를 전문대학 이름으로 일원화하여 일제히 개편되었다.

(2) 실업고등전문학교 시기(1964~1969)

실업고등전문학교는 일본이 5년제 공업계 및 상선(商船)계 고등전문학교를 1963년부터 설립하는 것에 자극을 받아 1963년 8월 7일 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실업고등전문학교의 설립 목적은, “산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며 산업기술을 연마하여 중견산업기술인을 양성함”에 있었다. 그리고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하였으며, 입학자격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였다.

실업고등전문학교는 전문학교로 개편되기 전인 1969년에는 학교수가 최초 설립 당시인 1963년 10개교보다 13개교가 늘어난 23개교가 되었으며, 학생수는 707명에서 20,741명으로 늘어났고, 교원수 역시 30명에서 905명으로 늘어났다가 그 후 학교수가 점점 줄어들어 1975년에 2년제 전문대학으로 모두 개편되었다.

(3) 전문학교 시기(1970~1978)

전문학교는 국제개발협회(IDA)의 교육차관사업을 조건으로 탄생되었으며, 1970년 1월 1일 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그 후 해마다 새로운 전문학교가 신설되거나 실업고등전문학교가 개편되었으며 또 대부분의 간호고등학교들도 간호전문학교로 개편되었다.

전문학교의 교육목적은 “사회 각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중견직업인을 양성함”에 있었다. 수업연한은 2~3년이었고, 입학자격은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였다.

(4) 전문대학 시기(1979이후)

전문대학의 도입은 1977년 12월 31일 교육법개정으로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전문대학의 교육목적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에 필요한 중견직업인을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에 있다.

한편, 1997년 12월 31일 고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법 제18조에 “학교의 명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하여 학교명칭 결정에 대한 자율권을 학교법인에 부여하였다. 그 결과로 인해 대부분의 전문대학은 1998년 이후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2. 미용관련 학과의 설치 및 발전과정

1991년 부산의 「동주여자전문대학」과 강릉의 「영동전문대학」에 국내 최초로 미용관련 학과가 개설되면서 전문대학 미용교육시대의 문을 열게 되었다.

그 뒤에 미용학과는 꾸준한 인기 속에 발전을 거듭하여 1997년에는 18

개 학교로, 1998년에는 29개교이던 것이, 2002학년도에는 60개교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그 학과명칭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토탈개념의 미용학과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헤어전공, 메이크업전공, 피부관리전공, 향장공학전공 등으로 분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실 전문대학에 미용관련학과가 개설되기 이전만 해도 미용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지 않았었다. 그러나 1991년도 이후 미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단순한 기술로만 다뤄지던 미용이 학문 차원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1999년도부터는 전문대에도 학부제가 도입되어 동주여자대학은 미용계열학부를 설치하여 미용예술전공과 피부미용전공으로 세분화하였고, 경북과학대도 관광계열학부에 뷰티아트전공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더 나아가 미용교육계의 최대관심사인 4년제대학 미용관련과가 광주여자대학교 가정정보계열학부에 미용과학과로 신설됨으로써 바야흐로 미용의 중흥기를 맞게 된 것이다.

미용의 학문적 체계화는 대학원과정에 미용관련전공이 설치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분장예술학전공과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에 향장미용전공 등을 비롯하여 몇 개 대학에 미용관련 전공이 설치되었으며, 또 국민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 등에는 사회교육원의 과정으로 미용인을 위한 재교육과정이 설치됨으로써 다양한 형식으로 미용이 학문화 과정이 밟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용이 학문으로서의 발전을 거듭함으로써 미용에 관한 개념의 변화도 가져오고 있다. 본디 미용은 문화의 가치를 창조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아울러서 미용은 시대적 요구에 순응하면서 보건과 풍속에 관련이 깊은 분야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학문으로서의 미용은 보다 과학화하고 있으며, 특별히 생물학과 화학분야와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미용분야에 해당하는 헤어(hair), 피부(skin care), 네일(nail), 메이크업(make-up) 차원에 머물지 않고, 특수분장의 영역은 물론, 코디네이션 분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3. 미용관련학과 설치 실태

미용관련학과는 단설과에서 출발하여 학부제로 발전해 있으며, 학과 명칭도 다양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과의 명칭중에 「미용」이라는 단어 뿐만 아니라, 「뷰티」, 「코디」, 「메이크업」, 「디자인」, 「아트」, 「케어」 등의 외국어를 포함시킨 명칭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학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로는 경동정보대학이 산업디자인계열 코디에이크업전공을, 경북과학대학이 향장보건계열 뷰티디자인전공과 화장품(향장)전공을, 공주영상정보대학이 뷰티디자인계열을, 군장대학이 피부미용계열을, 김천과학대학이 피부미용계열 헤어디자인전공과 피부관리전공, 그리고 메이크업전공을, 김천대학이 뷰티아트계열을, 담양대학이 피부미용학부를, 대동대학이 피부미용계열을, 대전보건대학이 보건계열 피부미용과를, 동아인재대학이 보건계열 피부미용전공을, 동우대학이 보건계열 피부미용과를, 동주대학이 미용계열이, 부산여자대학이 보건계열 피부미용과를, 서라벌대학이 뷰티코디네이션학부를, 성화대학이 피부미용계열을, 신성대학이 미용예술계열을, 안산공과대학이 관광서비스계열 뷰티디자인과를, 강릉영동대학이 보건계열 미용예술과를, 전주기전여자대학이 실용예술학부 헤어디자인과를, 제주한라대학이 보건계열 피부미용과를, 해천대학이 디자인계열 코디네이션디자인전공을 설치함으로써, 모두 21개 대학에 이르고 있다.

단일학과로 운영되는 학교의 학과명칭도 다양하다.

「피부미용과」라는 명칭으로 설치된 대학은, 경도대학, 경북대학, 경인여자대학, 광양보건대학, 광주보건대학,¹⁶⁾ 구미1대학, 나주대학, 동강대학, 동원대학, 목포과학대학, 삼육보건대학, 선린대학, 순천청암대학, 안동정보대학, 우송정보대학, 전남과학대학, 정인대학, 진주보건대학, 창원전문대학, 청양대학, 충청대학 등 21개 대학이며,¹⁷⁾ 양산대학과 원광보건대학은 「피

16) 광주보건대학은 피부미용과에 헤어전공, 피부관리전공, 메이크업전공으로 분류되어 있다.

부미용관리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뷰티디자인과」라는 명칭으로 설치된 대학은, 거창전문대학, 대경대학, 제주관광대학, 주성대학, 진주전문대학 등 5개 대학이며, 「코디메이크업과」라는 명칭으로 설치된 대학은,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 여수공업대학 등 2개 대학이 있다.

대원과학대학은 「메이크업코디과」라는 명칭으로, 마산대학은 「뷰티케어과」라는 명칭으로, 안산1대학은 「뷰티아트과」라는 명칭으로, 그리고 수원여자대학은 「미용예술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미용과」라는 명칭은 동남보건대학만이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17) 학부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학과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Ⅲ. 미용학과 커리큘럼

교과과정(curriculum)이라는 용어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의미도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미용학과의 교육과정, 즉 커리큘럼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용어의 정의부터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¹⁸⁾

본래 교과과정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 'curriculum'은 경주로를 의미하는 'course'라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말이다. 이것은 결승선을 향한 경주에서처럼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일정한 교과과정을 의미한다. 교과과정의 여러 정의들은 기본적으로 바로 이 경주로로서의 교과과정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¹⁹⁾ 한편, Zais는 교과과정을 7가지로 정의 내리고 있다.²⁰⁾

첫째로, 학습프로그램으로서의 교육과정(Curriculum as the Program of Studies)으로, 학교가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는 교과목을 가리킨다.

둘째로, 교과내용으로서의 교육과정(Curriculum as Course Content)으로서 가르치는 교과목의 내용을 교육과정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로, 계획된 학습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Curriculum as Planned Learning Experience)로서, 이는 20세기 이후에 교육과정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교육과정개념 중의 하나다.

넷째로, 학교의 후원하에 '갖게 된' 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을 말하며, 다섯째로, 구조화된 일련의 의도된 학습결과로서의 교육과정을 들고 있다.

여섯째로, 활동을 위한 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 일곱째로 교과과정의 질층적 개념으로서의 교육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18) 학교 교육도 직업군에 따르는 공통적 능력을 학습하는 현재의 Broad Based Curriculum에서, 특정 직업의 전문적 직업의 능력을 강조하며 일부 선진국 등에서 시도하는 Narrow Based Curriculum도 앞으로 연구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권영자, "전문대학 피부미용과 교육과정 수정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제1권 제1호, 1995].

19) 진영은 외,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의 탐구, 학지사, 2002, p.14

20) Zais, Robert S., *Curriculum: Principles and foundations*, Harper & Row, Publishers, 1976, pp.6-14.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Zais가 정의한 첫 번째 정의를 기준으로 대학의 미용관련학과 교과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아래의 분류는 인터넷에 게재되어있는 교과과정중 전공과목을 기초로 하였으며, 이를 헤어미용분야와 피부미용분야, 메이크업분야를 비롯하여 10가지의 분류표준을 만들어 분석하였다.

1. 헤어미용분야의 커리큘럼

헤어미용분야의 커리큘럼 과목들은 이론부문과 실기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론부문으로는 모발미용학, 두발미용학, 두발과학, 헤어스타일 역사, 모발관리학 등이 있다.

실기부문으로는 또 다시 일반 헤어부문과 헤어기술별 과목으로 나뉘볼 수 있다. 일반헤어부문으로는, 모발관리 이론및실습, 헤어베이직, 베이직헤어, 헤어어드밴스, 어드밴스드 헤어, 스캘프&헤어케어, 두피와두발관리, 크리에티브헤어 등이며, 헤어디자인부문으로는 헤어스타일스케치, 헤어디자인실습, 헤어디자인 응용실습, 임상헤어디자인, 포토헤어스타일링, 응용헤어이론및실습, 토탈실기응용, 창작미용이론및실습, 헤어창작실습, 창작헤어, 헤어세미나 등이 있다.

헤어세트 과목으로는 세트이론및실습, 세팅및업스타일, 헤어세트, 헤어셋팅앤스타일링, 업스타일 등이, 헤어컷 과목으로는 커트이론및실습, 남자커트(남성커트), 남성 클리퍼 헤어컷 특강, 응용커트 등이, 퍼머넌트웨이브 과목으로는 perm이론및실습, 응용퍼머, 디자인퍼머 등이, 헤어컬러링 과목으로는 염색과탈색 이론및실습, 헤어컬러링 등이, 드라이 과목으로는 드라이및업스타일, 드라이및헤어디자인실습, 드라이 이론및실습, 블로우드라이, 헤어드라이·아이론 이론및실습, 헤어웨이브아트 등이 있다.

① 두발미용학 (Hair Dressing) : 두발의 메카니즘을 이해하고 두발 제품의 원리를 익히며 질환에 따른 예방 및 관리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② 두발과학 (Hair science) : 모발의 생리와 형태 및 구조를 알고 모발의 손상을 방지하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발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발의 특성을 연구하는데 목적을 둔 과목이다.

③ 모발관리학 : 모발과 두피의 형태 및 구조를 파악하고, 모발의 건강 관리 및 두피의 건강관리의 요령을 숙지하도록 하며, 모발이나 두피의 손상 및 병리현상을 파악하고 가능한 처치요령을 익히는 과목이다.

④ 헤어베이직(Hair Basic) : 전문 미용인이 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이론을 학습하며, 임상실무에서 사용되는 기기와 제품사용법을 터득케 하여 현장 적응력을 갖추도록 하는 과목이다.

⑤ 헤어어드밴스(Hair Advance) : 모발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토대로 하여 테크닉의 습득 효과를 극대화하고, 헤어 파트에서 중요시하는 컷트, 염색 펴의 집중적인 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⑥ CUT 이론 및 실습(THEORY AND PRACTICE OF CUT) : Hair Cut의 정의 및 목적, Hair Style의 종류,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Hair Style을 연출하도록 지도하는 과목이다.

⑦ PERMANENT 이론 및 실습(THEORY AND PRACTICE OF PERMANENT) : 모발생리학에 근거한 PERM의 이론 및 시술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과목이다.

⑧ 드라이 및 헤어디자인 실습(DRY AND HAIR DESIGN OF PRACTICE) : 두부의 형태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연출 및 스타일에 따른 드라이 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과목이다.

⑨ 염색과 탈색(HAIR COLORING AND BLEACH) : 개개인의 피부톤에 어울리는 헤어칼라의 분위기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창출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기를 익히는 과목이다.

⑩ 헤어디자인실습1 (Pratice of hair design 1) : up-style 및 부드러운 웨이브의 흐름을 만들기 위한 아이롱과 롤러컬을 습득하는 과목이다.

⑪ 헤어디자인실습2 (Pratice of hair design 2) : 기초적인 cut 기법과 coloring을 실습하는 과목이다.

⑫ 헤어디자인실습3 (Pratice of hair design 3) : Perm, Cut을 효과적으로 연출하기 위해 Perm And Coloring, Cut And Coloring을 익히는 과목이다.

⑬ 헤어디자인연구1(A study of hair design 1) : 다양한 두발형태에 따른 cut와 perm을 실습하는 과목이다.

⑭ 헤어디자인연구2(A study of hair design 2) : cut의 다양한 기법 습득과 cut을 완성시키는 dry 기법을 학습하는 과목이다.

⑮ 헤어디자인연구3(A study of hair design 3) : 웨딩 · 약혼 · 쇼연출을 위한 up-style을 실습하는 과목이다.

㉠ 헤어셋팅앤스타일링(Hair Setting & Styling) : 업 스타일의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토털 패션에 대하여 스타일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과목이다.

⑥ 헤어컬러아트(Hair Color Art) :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칼라 리스트를 만들기 위하여 좀더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칼라교육을 하기 위한 교과목이다.

2. 피부미용분야의 커리큘럼

피부미용분야 중 이론과목으로는 피부관리학총론, 피부과학, 신체와 피부과학, 피부미용영양학 등이 있다.

이론및실기과목으로는 피부관리과목으로 스킨케어, 피부관리이론및실습, 에스테틱개론, 에스테틱기초실습, 에스테틱실습, 에스테틱이론및실습, 에스테틱응용실습, 에스테틱세미나, 에스테틱 특수관리, 에스테틱 임상실습, 살롱에스테틱, 응용에스테틱, 살롱 트리트먼트, 피부살롱트리트먼트, 고급피부관리 이론및실습, 피부특수관리(특수피부관리실습) 등이 있으며, 전신관리과목으로 바디이론및실습, 바디에스테틱, 바디트리트먼트, 전신관리 등이, 신체부분에대한 과목으로 손·발관리학, 핸드&풋마사지, 두피관리실습, 스칼프트리트먼트, 헤어트리트먼트, 안면관리실습, 특수안면관리, 근육조정마사지 등이 있다.

테라피과목으로는 림프·아로마테라피, 아로마테라피, 아로마림프관리, 아로마 및 AHA관리실습, 특수 테라피 등이 있으며, 그 외에 한방미용학, 스포츠마사지, 비만관리 이론및실습, 피부미용기기관리, 에스테틱기기관리 등의 과목이 있다.

① 피부관리학총론(Theory of esthetic) : 피부의 메카니즘을 깊이 있게 이해하며 관리 제품의 성분학적 화장품의 원리등을 익히고, 피부 질환에

따른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과목이다.

② 피부과학(Dermatology) : 피부의 구조와 생리, 질환 및 관리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피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는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을 담은 과목이다.

③ 피부관리 이론 및 실습(Theory and Practice for Cosmetic) : 임상에 필요한 모든 technique을 단계적으로 익혀서 피부관리학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겸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과목이다.

④ 에스테틱개론(Esthetic Theory) : 에스테틱의 전반적 개론에 대해 이론적 체계를 습득케 하여 전문인의 자질과 전문적 지식을 습득케 하는 과목이다.

⑤ 에스테틱 실습(Pratice of esthetic) : 미용실기를 기본으로 피부관리 기기의 사용법을 익히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익히는 과목이다.

⑥ 에스테틱 실습연구(Pratice of esthetic) : 에스테틱 실습을 중심으로 특수관리를 중점적으로 실습하는 과목이다.

⑦ 에스테틱세미나 : 에스테틱 관련 산업체와 연결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를 접하고 익히도록 하는데 교육 목표를 둔 과목이다.

⑧ 응용에스테틱(Advanced Esthetic) : 현재 에스테틱의 전문적인 분야로 메디컬 분야의 기기사용법, 필링법 및 에스테틱션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기법과 매너에 관한 교과목이다.

⑨ 페이스트리트먼트(Face Treatment) : 에스테틱 실기의 기초가 되는 얼굴관리 전 단계를 실습하는 과목으로 위생과 청결, 고객 응대, 크린싱 및 마사지 동작을 익히는 과목이다.

⑩ 바디트리트먼트(Body Treatment) : 바디 테크닉의 기본이 되는 것 중의 하나인 SWEDISH MASSAGE 테크닉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습을 충분히 숙달하고 고객을 PROFESSIONAL하게 관리하는 방법과 나아가 급 단계의 테크닉을 연마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과목이다.

⑪ 아로마테라피(Aroma Therapy) : 에스테틱의 전문적 기법인 아로마테라피의 이론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관리에 적용하는 관리 테크닉을 습득함으로써 다양한 현장 업무를 적용 할 수 있는 유능하고도 전인적인 에스테티션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과목이다.

⑫ 에스테틱기기관리(Esthetic Equipment Management) : 피부미용관리에 있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의 한 부분으로 기기를 이용한 피부관리의 올바른 사용법을 위한 전기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기기 사용법을 습득하여 실제의 적용에 있어 안정되고 확실한 방법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둔다.

3. 메이크업분야의 커리큘럼

메이크업분야 과목은 기초메이크업, 베이직메이크업이론및실습, 뷰티메이크업 이론및실습, 메이크업이론및실기, 아트메이크업, 메이크업디자인워크샵, 특수분장, 분장 이론및실습, 영상스태이지메이크업, 분장과 바디페인팅, 토탈스태이지 메이크업, 메이크업 트렌드 세미나, 메이크업 임상실습, 메이크업아트디자인, 테마메이크업특강, 캐릭터메이크업 등이 있다.

① 기초메이크업(Base Make-Up) : 메이크업의 기초 이론 및 실습을 익히는 교과목이다.

② MAKE UP 이론 및 실습(THEORY AND PRACTICE OF MAKE UP) : 개개인의 특성에 어울리는 색조를 구상하고 헤어스타일과 의상에 따른 화장법을 지도하는 과목이다.

③ 아트 메이크업(ART OF MAKE UP) : 인체에 표현할 수 있는 행위 예술의 한 분야로 단순히 치장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는 테크닉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4. 네일 · 경락 · 발관리분야의 커리큘럼

네일아트, 네일관리실습, 네일케어및아트, 경락및발건강요법, 경락및한방요법, 경락요법 이론및실습, 매니큐어&페디큐어, 발관리실습, 발관리요법 이론및실습, 발반사요법실습, 발건강관리 이론및실습, 미용경락관리, 대체요법, 수지침, 경혈학 등이 있다.

① 네일 아트(NAIL ART) : 손톱뿐 아니라 손 전체를 청결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실용적이므로 미적인 조형으로 디자인 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과목이다.

② 네일케어 및 아트(Nair Care & Art) : 현장에서 유능한 네일 테크니션이 되도록 이론을 바탕으로 탄탄한 기본기는 물론 테크닉과 아트에서도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과목이다.

③ 매니큐어 & 페디큐어(Manicure & pedicure) : 손,발 관리의 이론 및 실습을 통해 네일 아티스트와 발관리사로서의 교육과정을 지도하는 과목이다.

④ 발관리 이론 및 실습(Theory and Practice for Refleydlogy) : 발 반사구를 응용하여 신체의 각 기관과 연결되는 혈점을 익히고 질병과의 상응관계를 연구한다.

⑤ 발건강관리(Foot Health Care) : 발의 구조와 기능을 정확히 이해하고, 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습득한 후 학생들로 하여금 발마사지 기법을 익힌다.

5. 미용일반 및 예술학분야의 커리큘럼

미용학개론, 미용문화사, 미용미학, 미용예술학, 디자인미학, 디자인론, 패션문화사, 미용세미나, 트렌드분석, 코디네이션, 토탈코디네이션, 코디네이션방법론, 헤어뷰티코디, 색채학, 미용일러스트레이션, 색채학&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 사진학 이론 및 실습, 사진학, 포트폴리오, 이미지메이킹, 컴퓨터뷰티 디자인, 퍼포먼스, 미용공예, 소묘, 발상과 표현기법, 기초디자인, 컴퓨터그래픽기초, 그래픽디자인, 현장실습 등이 있다.

① 미용학개론(Introduction to cosmetology) : 미용의 의의 및 역사, 미용 이론과 시술의 예, 미용경영 등 미용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기초적인 이론을 정립하는 과목이다.

② 미용예술학(Beauty Art) : 모발 미용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이론과 예술적인 경향을 다룸으로써 향후 모발미용의 전문가로서의 기본 지식과 예

술적인 마인드를 정립하는데 있어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과목이다.

③ 디자인미학(Theory of design) : 의상, 헤어, 메이크업의 응용분야인 디자인 이론을 이해하여 토탈 뷰티 코디네이터로서의 기본 자질을 익히고, 이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둔 과목이다.

④ 코디네이션(COORDINATION) :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의상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악세사리 활용법 등 토탈 연출법을 익히는 과목이다.

⑤ 토탈 코디네이션(Total coordination) : 패션과 메이크업, 헤어에 대한 조화로움의 중요성과 아름다움의 창의적 연출을 이해하여 이를 연구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목이다.

⑥ 코디네이션 방법론 : 패션과 미용을 중심으로 토탈 코디네이션의 개념을 다양하고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미용 전문인의 자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이론적인 지식 및 실기능력을 배양시키는 과목이다.

⑦ 헤어뷰티코디(Hair Beauty Cody) : 헤어, 메이크업, 패션을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헤어· 메이크업 & 스타일사를 기초로 하여 코디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과목이다.

⑧ 색채학(COLOR) : 색채의 심리적 효과와 미용 및 복식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표현기법을 익히는 과목이다.

⑨ 색채학 및 일러스트레이션(Color theory & illustration) : 색채에 대한 이론 및 실습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색채감각을 익히며, 메이크업과 헤어 디자인의 묘사능력을 배양키 위해 페이스 스타일화를 중심으로 일러스트레이션을 실습하는 과목이다.

⑩ ILLUSTRATION : 미용을 실용적이고 미적인 조형으로 디자인하기 위해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단계로서 구체적이고 실기를 토대로 하여 감각을 높일 수 있게하는 과목이다.

⑪ 헤어일러스트레이션(Hair Illustration) : 헤어스타일선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하여 헤어스타일 시술과정에 따른 라인을 세부적으로 그려봄으로써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창작할 수 있다.

⑫ 이미지 메이킹(IMAGE OF MAKING) : 토탈 차밍의 개념으로 화술법, 자세, 대인관계법, 인사법, 걸음걸이 등을 복식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과목이다.

⑬ 사진학(Photo technipue) : 메이크업, 헤어 디자인의 응용분야인 광고 사진, TV분장에 필요한 사진의 기본분야와 실기를 배우는 과목이다.

⑭ 현장실습(Job traning) : 학교에서 습득한 이론 및 실습을 산업 현장에서의 실전경험을 통해 보다 체계화시키고 실무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과목이다.

6. 소독학 및 보건학관련분야의 커리큘럼

공중보건학, 미생물학및소독방법, 소독법과 전염병학, 소독법, 전염병학, 미용과 건강, 공중보건&위생법규, 미용영양학, 미용과 다이어트, 미용보건, 미용건강증진학, 영양학, 영양과 식이 등이 있다.

① 공중보건학(Public health) : 환경위생, 영양학, 역학, 급만성 전염병 관리, 소독, 구충, 정신보건, 위생학, 인구학 등을 다루어 인간으로 하여금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며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목표를 둔 과목이다.

② 소독법과 전염병학(Disinfection & infection) : 피부 및 모발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고 감염 예방 및 전염병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익히는 과목이다.

③ 미용건강학(Dietetic & health) : 영양학의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건강한 아름다움을 관리하고 유지시키는데 목표를 둔 과목이다.

④ 미용영양학 (Dietetics) : 영양학의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건강한 아름다움을 관리하고 유지시키는데 목표를 둔 과목이다.

7. 향장학분야의 커리큘럼

화장품학, 화장품과학, 향장학 등이 있다.

① 화장품학(Cosmetics) : 화장품의 기본요소와 성분학, 용도에 따른 분류 등에 관한 이론을 익히고, 이를 토대로 화장품이 피부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습득하게해 종류에 따라 올바르게 적용하도록 지도하는 과목이다.

8. 생리학 · 물리학 · 화학분야의 커리큘럼

인체해부학, 인체생리학, 해부생리학(생리해부학), 인체생리해부학, 모발생리 이론및관리, 모발생리학, 모발화학, 미용인체이론, 미용화학, 운동처방학 등이 있다.

① 생리학(Anatomy & physiology) : 인체의 구조 및 그 구성요소들과 각 기관의 기능을 연구하며, 육안적 및 조직학적구조를 이해하고 미용에 필요한 각 부위의 명칭을 익히는 과목이다.

② 모발생리학(Physiology of hair) : 모발의 생리와 형태 및 구조를 알고 모발의 손상을 방지하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발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발의 특성을 연구하는데 목적을 둔 과목이다.

9. 미용경영 및 제도관련 분야의 커리큘럼

위생법규, 미용경영학, 살롱매니지먼트, 상담심리&미용경영, 미용마케팅관리, 인터넷미용경영, 미용상담과 경영, 뷰티마케팅, 뷰티컨설팅 등이 있다.

① 위생법규(Regulation of hygiene) : 피부미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반 사항을 습득하고 피부미용업의 위생법규에 대한 기본소양을 인지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둔 과목이다.

② 미용경영학(BEAUTY OF MARKETING) : 미용관련업체 및 살롱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문적인 경영방법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과목이다.

③ 상담심리 & 미용경영(Counselling & salon management) : 카운셀링 기본과 미용업체에 대한 경영관리의 현대적 발전을 이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경영관리의 구조와 원리를 규명하고 실제 경영관리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목이다.

10. 교양분야의 커리큘럼

기타 교양차원의 전공과목으로는 미용영어회화, 미용원어의 이해, 전공용어, 비즈니스 매너, 선진미용연수 등의 과목을 들 수 있다.

① 전공용어 : 피부미용에 관련된 전문용어와 학술용어를 습득하고 전문미용인으로서의 어학능력을 배양하는 과목이다.

전문대학 미용관련과의 교과과정은 그 명칭의 차이는 다양하다 하겠지만, 과목의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과목의 비중에서 헤어미용과목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피부미용, 메이크업 순으로 편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IV. 대학 이외 미용교육기관의 커리큘럼

한국에서의 미용교육은 전문대학에 미용관련 학과가 설치되기 훨씬 이전부터 학원교육을 통해 실시되어 왔으며, 그 뒤 고등기술학교와 직업전문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으로 확대 발전되고 있다. 이들 교육기관중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는 전문대학과 마찬가지로 그 과정의 수료로만 미용사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커리큘럼의 다양화가 가능하지만, 미용학원의 경우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국가기술자격시험 과목을 중심으로 한 기초반 교육과, 실무연마를 위한 연구반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하에서 이들 교육기관의 특성과 커리큘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고등기술학교의 커리큘럼

고등기술학교의 교육은 사회의 변화와 산업발전의 추세에 따라 평생교육체제 내에서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알맞은 다양한 직업분야의 직무에 적용하고 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1년제과정, 3년제과정, 전공과정 등의 다양한 과정을 개설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²¹⁾

1년제 과정에는 제과·제빵, 미용, 피부미용, 이용 등의 학과를, 3년제과정에는 농업, 기계, 자동차, 전자, 통신, 전자계산기, 미용, 피부미용, 이용, 유아교육, 응용미술, 음악, 꽃 예술 등의 학과를 두고 전문과목의 이론과 실습을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21) 교육법 제129조는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는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의 지지과 기술을 연마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고등기술학교의 설치목적 을 밝히고 있다.

미용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기술학교는 정화고등기술학교, 민혜고등기술학교, 연희미용고등기술학교, 경기고등기술학교, 금호고등기술학교, 무궁화고등기술학교, 한진고등기술학교, 중앙고등기술학교, 인천고등기술학교 등 전국에 9곳이 있으며,²²⁾ 1년제 미용과와 2년제 미용 전공과가 있는 곳도 있다. 1년 과정은 1,226시간, 2년과정은 2,414시간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수료후 1년제는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2년제는 미용사 자격증과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고등기술학교에서는 대체적으로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여 커리큘럼을 구성²³⁾하고 있으며, 보통교과는 국어, 영어, 국사 등이 포함되고 있으며, 전문교과로는 미용이론, 커트이론, 피부과학, 공중보건학, 소독학, 전염병학, 위생법규 등이, 그리고 실기실습으로는 헤어, 스킨케어, 네일케어, 메이크업 등이 포함되고 있다.

실기실습중 「헤어」과목은, 머리의 모양, 색 등 헤어디자인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독창적인 창의력을 가지고 기초에서 응용까지 모델 실습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커트」 과목에 One-length, Gradation, Layer 등이, 「스타일링 커트」 과목에 Regent, Swing bang bob, Shingling 등이 포함되어 있다. 퍼머, 드라이, 셋팅, 핀컬, 아이론, 업스타일, 핑거웨이브 등의 과목도 필수로 포함된다.

「Make-up」과목은, Natural make-up, Oriental make-up, Wedding make-up등이 포함되고 있다.

「Skin-care」과목은, Facial Massage, Head and Arm Massage 등으로 구성되며, 그 외에 「네일케어」 과목등이 포함된다.

2. 고등학교 미용과

22) 인터넷 http://hairworld.co.kr/Contact_Point/beauty_high_school.htm 참조.

23) 이하 무궁화고등기술학교의 예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미용고등학교는 부산미용고등학교가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1999년 6월 30일 승인을 받아 2000년 3월 2일 제1회 신입생이 입학하면서 문을 열었다.²⁴⁾

부산미용고등학교는 헤어미용과 피부미용, 메이크업, 네일아트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20개 학급에 968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부산미용고등학교의 「헤어미용과」는 단순히 모발을 스타일화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hair doctor로서의 전문가로 양성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피부미용과」는 인체 생리학을 기초로 하여 전반적인 피부진단을 하고 제품교육을 통해 피부유형에 맞는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메이크업과」는 인간의 근본적인 미적요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얼굴체형이나 신체구조에 맞는 화장문화를 발달시키고 창조함을 목적으로 하며, 「네일아트과」는 손 발톱 관리 및 토달 이미지의 연출이 가능하도록 실기를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학원에서의 미용 커리큘럼

학원이라 함은 사인(私人)이 일정한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을 말한다.²⁵⁾

한국에서의 미용교육은 미용학원이 그 정초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28년 11월에 최초로 설립된 「경성미용학교」에서 출발한 미용학원은 미용사면허제도와 관련하여 면허의 취득을 목적으로 수강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하며 성장을 거듭해 왔다. 미용학원의 역할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전문대학의 미용관련 학과의 설치는 존재할 수 없는 일임에 분명하다.

24) 부산미용고등학교는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인 부산진구 당감동 동평여상을 전환하여 개교한 학교다.

25) 학원의설립·운영및과의교습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최근의 통계를 보면, 2002년 현재 서울에 57개소, 부산에 34개소, 대구에 29개소, 인천에 11개소, 광주에 18개소, 대전에 10개소, 울산에 16개소, 강원도에 21개소, 경기도에 83개소, 경상남도에 24개소, 경상북도에 35개소, 전라남도에 17개소, 전라북도에 29개소, 충청남도에 19개소, 충청북도에 14개소, 제주도에 6개소 등, 전국에 423개소가 존재하고 있다.

미용학원의 커리큘럼은 크게 두 가지 기준에 맞춰지고 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국가기술자격시험을 대비한 기초과정과, 실무적용을 대비한 연구과정으로 대별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국가기술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고 있으며,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치러진다. 필기시험과목은 미용이론, 공중보건학, 소독학, 피부학, 공중위생법규 등 5과목 60문항이며, 실기시험은 미용작업으로 2시간 20분동안 실시된다. 실기시험의 출제과목은 커트, 퍼머, 세팅, 핑거웨이브, 화장 등으로 미용작업의 숙련도와 정확성을 평가하여 합격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²⁶⁾

이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시험과목으로 인한 내재적 한계성 때문에 학원의 미용교육 커리큘럼은 제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실무적용 훈련으로서의 연구과정은 그 커리큘럼의 구성이 다양성을 띠고 있다. 퍼머넌트나 커트, 세팅 등을 응용한 기술로 실무에 곧바로 적용해야할 기술을 훈련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강생의 요구(Need)에 적합하게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연구과정의 커리큘럼은 일정한 형식을 띠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물론 최근 들어 다양하게 도입된 외국의 미용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연구과정도 있으며, 이들 프로그램의 경우는 정치(精緻)하게 구성되어 있다.

한편 미용학원은 그 과목에 있어서 전통적인 헤어미용을 비롯하여, 피부관리,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으로 세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헤어미용과정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6개월과정, 3개월과정으로 편성되어

26) 미용사국가기술자격시험 합격자는 2001년 현재 308,704명이다.
[<http://www.q-net.or.kr>]

운영되고 있으며, 피부미용과정도 통상 6개월과정, 4개월과정, 3개월과정, 또는 1개월 속성 과정을 운영하기도 한다.

4. 재교육과정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재교육이 일관된 과정 속에서 지속적, 단계적으로 행해져야 한다.²⁷⁾

지식과 정보량은 빠른 속도로 발전과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용인들도 변화하는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재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특별히 미용은 인체에 대한 기술 또는 예술이라는 점에서 더욱 깊이 있는 지식과 연구를 필요로 하는 분야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새로운 미용기술에 대한 정보의 확보를 위해서도 재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할 것이다.

‘재교육’이라는 용어는 계속 교육(Continuing education), 직원 개발(Staff development), 전문적 개발(Professional development), 현직 훈련 등의 용어와 혼용되고 있다. 재교육의 목적은 끊임없이 변동하는 사회에 유능하게 대처하고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폭넓은 교양, 지식 그리고 기술을 습득케 하며, 기존 교육에서의 부족한 경험과 부족한 점을 추가 보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⁸⁾

미용관련 교육기관들의 교과과정이 현재와 같이 다양하여 표준화되지 않은 상황속에서는 물론이고, 교육과정이 실무와 연계성이 미흡할 경우에는 재교육의 필요성이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또한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직업은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도입을 위해 재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미용의 기술체계를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27) 이호순, “정보산업종사자 재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소프트웨어 기술인력 중심으로-,” 梨花女大 教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93[김춘자, “국내 피부미용관리사의 교육 및 업무실태 조사,” 梨花女大 教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99, p.14에서 재인용].

28) 김춘자, 상계서.

수립해 나가기 위해서 재교육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미용업무를 수행하는 미용사들이 직면하게 되는 변화하는 상황을 능동적으로 따라잡기 위해서 미용사가 항상 배워야 할 것이며, 아울러서 재교육에 관한 교과과정의 편성에 관해서도 향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제 2 절 외국의 실태

I. 미국

미국의 경우는 주(州)마다 제도가 다르고 입법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을 정해서 설명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다만 한국인들이 주로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등을 비롯한 몇 주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헤어분야와 피부관리 분야가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헤어분야의 이수 시간은 1560~160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체적으로 미국 내 일부 미용학교에서의 미용교육 시간수는 이론 377시간, 실습 1,228시간, 모두 1,605시간을 이수하게 된다. 그리고 피부관리는 600시간으로 되어 있다.²⁹⁾

미국에서의 미용교육은 한국과는 달리 사회직업 교육과정의 하나로서 다뤄지게 되며, 그로 인해 교양과목이 없이 모든 시간을 전공분야에 치중하는 전공 심화교육에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직업학교내에 미용실이나 피부미용실을 개설하여 현장과 연결선상에서 직접 고객과 상담하고 시술을 할 수 있게 하는 실습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미용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과서의 내용은 세균학, 소독법, 전염병학, 두피와 머리카락(모발학), 샴푸, 린스, 컨디셔닝, 헤어커팅, 핑거 웨이빙, 열을 이용한 헤어디자인, 퍼머넌트 웨이빙, 머리 염색, 헤어 프레싱, 가발을 이용한 헤어디자인, 피부학, 털 제거법, 세포학, 해부학, 생리학, 전기학, 적외선·자외선 치료법, 화학, 살롱 경영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³⁰⁾

29) 김춘일·송선영, “전문대학 미용관련학과의 발전방안”, 濟州漢學大論文集 23 1999.12, p.159.

30) 양복희, “2년제대학 미용관련과 교육과정 실태조사”,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

한편, 미용교육은 궁극적으로 미용사면허취득문제와 아울러 실무능력향상이라는 두 가지 사실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미국의 미용사면허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³¹⁾

여기서 뉴욕주의 예를 들면, 뉴욕주는 ‘통합법’(Consolidated Laws)중 ‘일반상법’(General Business)에 미용사 및 미용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법에서의 미용사 면허획득자(Licensee)란 이 법에 따라 미용업에 종사하도록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

미용업과 관련된 주무장관에게 부여된 권한은 면허 신청자 및 예상 신청자의 자격요건 및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권한, 이 법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된 자에 대하여 주무장관이 선정한 의사가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권한, 시험실시에 관한 규정 안내서를 제작하고, 그것의 사본을 희망하는 자에게 적절한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권한 등이다.

미용사면허는 18세 이상인 자로서 미용업에 종사하기 위한 인가 취득을 원하는 자가 주무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의 자격요건과 관계된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첨부되어야 한다. 여기에 첨부하는 서류들 중 중요한 사항을 보면, ① 신청인이 전염성 질병에 걸리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진단서로 신청서 제출 전 30일 이내에 발급된 것, ② 주무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초등교육 이수 증명서, ③ 교육법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를 취득했거나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미용학교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음을 충족시키는 증명서, ④ 주무장관이 발급하는 필기시험 합격 증명서 등이다. 시험은 영어로 진행되어야 하며, 응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필요성에 입각한 주무장관의 재량에 따라 다른 언어로 번역될 수 있고, 시험은 최소한 네 장소에서 분기별로 실시된다. 면허신청인이 성공적으로 시험을 통과한 경우, 그리고 면허취득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주무장관은 법에서 부과하는

학위논문, 2000, p.9.

31) 이하 ‘이한웅, 전계자료, p.9.’

비용을 접수하고 미용업 종사를 허가하는 면허를 발급하게 된다.

그리고 자격증제도는 토탈을 다룰 수 있는 미용사(Cosmetologist)와 피부 관리(Skin care)만 전문으로 하는 피부관리사(Esthetician), 두발만 다루는 두 발 디자이너(hair stylist), 손톱만 전문으로 다루는 미조사(Manicurist)등 각 영역별로 면허제도가 있다.

II. 일본

일본의 경우도 미용사면허제도의 확립을 통해 미용교육의 목표와 과정이 설정되고 있다. 이하 일본의 미용사면허제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³²⁾

일본의 ‘美容師法’에 따르면 일본의 미용사면허는 ‘후생노동장관’이 부여하고, 미용사시험도 후생노동장관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시험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지 않다. 즉 학교교육법에 규정하는 자로, 후생노동장관이 지정한 미용사양성 시설에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미용사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한 자가 아니면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미용사양성 시설에는 주간과정, 야간과정, 통신과정 등의 양성과정 전부 또는 일부를 들 수 있으나 통신과정의 경우는 주간과정 또는 야간과정을 두는 미용사양성 시설에 한하여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용사양성 시설 중에서 주간과정 또는 야간과정에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는 자에 있어서는 2년, 통신과정에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는 자에 있어서는 3년의 과정을 이수하여야만 미용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수험원서를 후생노동장관에게 제출할 때는 반드시 지정을 받은 미용사양성 시설의 졸업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미용사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뉘는데, 필기시험 과목은 ① 관계법규·제도, ② 위생관리, ③ 미용보건, ④ 미용의 물리·화학, ⑤ 미용이론 등이며, 실기시험은 미용실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에 의해,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합격한 미용사시험에 이어서 실시되는 차기 미용사시험에 한하여 그 합격한 시험을 면제한다. 시험을 시행하는 기일 및 장소 그리고 수험원서의 제출기한은 미리 관보로 공고한다.

32) 이하 ‘이한웅, 전계자료, pp.8-9.’

후생노동장관은 미용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합격증서를 교부하게 되는데, 합격자 중에서 이른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만 후생노동장관의 미용사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본 미용사법이 정하고 있는 미용사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심신의 장애에 의해 미용사의 업무를 적정하게 행할 수 없는 자와, 무면허영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그리고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 등이다.

Ⅲ. 독일

독일 일부 전문학교는 총수업시간이 2,232시간에 이를 정도로 집중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전문학교의 교과과정은 교양과목 372시간, 전공 이론과목은 독일이 868시간, 나머지가 전공 실습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³³⁾

독일의 경우는 직업학교가 잘 발달되어 있다. 미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2년제 혹은 1년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용학교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과정별 기간의 차이는 미용실 개업능력 여부와 관련이 있는데, 1년제를 이수한 경우에는 미용실을 개설할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러한 미용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졸업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이 시험이 이른바 미용사면허시험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시험은 학교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주관하며, 시의 감독관이 직접 나와 진행하게 된다. 시험은 이론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되며, 이론시험에 합격한 자가 1년과정의 실습기간을 거친 뒤에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리고 실기시험에 두 번 실패하게 되면 영원히 그 직업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³⁴⁾

독일은 두발과 피부 관리가 분리되어 운영되며, 두발은 미용 기술 학원이나 학교에서 3년 코스중 1년반은 현장 실습과 연결되며 졸업후 테스트를 거쳐 면허를 취득한 후 현업이 가능하다. 피부관리는 1년 반 정도로 테스트 후 면허를 취득하여 현업에 종사하게 된다.³⁵⁾

33) 김춘일·송선영, 전계논문, p.159.

34) 이한용, 전계자료, p.10.

35) 권영자, "전문대학 피부미용과 교육과정 수정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제1권 제1호, 1995.

제 3 장 우리나라 미용교육 커리큘럼의 문제점

오늘날 대학의 환경과 관련한 두드러진 특징은, 대학진학자의 지속적 감소,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진출,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유연한 대처의 필요성 등이 있다. 그런데 대학의 미용관련학과 교과과정은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학과명칭의 다양화 추세는 미용교육의 다양화를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지만, 그 교과과정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헤어와 피부미용, 메이크업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되기도 한다.³⁶⁾

이하에서 미용교육 커리큘럼에 있어서의 교육 목표상의 문제와 교육과정상의 문제, 그리고 졸업 후 자격취득 및 진로에 관한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교육 목표상의 문제

36) 구자영·장문정, “전문대학 미용계 학과의 학과명칭과 교육과정 수정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제2권 제1호, 1996, pp.163-165 : 동 논문은 “미용관련 학과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과 명칭은 서로 다르지만, 교과과정과 교육내용에서는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수요자인 신입생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 나라 고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전문대학의 목적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³⁷⁾에 있다. 반면에 4년제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목적³⁸⁾으로 하고 있어,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과는 다르게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이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의 피부미용과는 미용 전문 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새겨야 한다.

한편, 실제 각 대학에서 표방하는 미용관련학과의 교육목표는 그 표현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몇몇 학교의 사례를 아래에 언급하고자 한다.

“미용의 전반적인 이론과 기술을 과학적이며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건강한 미를 창출할 수 있고 응용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탈 미용 전문인을 양성한다. 또한 고객만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미용경영인을 육성하여 미용문화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미를 창출하는데 공헌하고자 한다.”³⁹⁾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향유하려는 인간의 소망과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 사회의 질적 변화로 말미암아 토탈 패션(Total Fashion)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학과는 미용(Hair), 메이크업(Make-up)에 바탕을 둔 전문적인 연구와 실무를 습득하여 창의적이고 미적 능력을 갖춘 아티스트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⁴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보다 나은 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욕

37) 고등교육법 제47조 본문 참조.

38) 고등교육법 제28조 참조.

39) 서울보건대학 보건계열 미용예술과 교육목표.

40) 안산공과대학 관광서비스계열 뷰티디자인과 교육목표.

구 와 더불어 우리도 이젠 경제 성장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 사회의 질적 변화로 말미암아 토탈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본 뷰티아트과에서는 건강한 미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과 응용력을 갖춘 미용전문인을 양성함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⁴¹⁾

“본과는 의학을 토대로 한 피부구조와 생리에 알맞는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피부관리 이론 및 실기, 예술적 미를 가미한 Hair 이론 및 실기, Make-up 이론 및 실기와 코디네이션 실기 등의 전공학문 뿐만 아니라 전공과 연계된 인접학문의 지식도 교육함으로써 미용에 관한 총체적인 전문지식과 실기 습득은 물론, 인간의 미적 욕망을 충족시키고, 미를 창조하는 예술적인 감각까지 습득케 하여 21세기 테크노피아 시대의 미용산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미용인을 육성하고 있다.”⁴²⁾

“인체의 생리 및 구조 성장에 따른 합리적인 피부관리 및 헤어 메이크업등 미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체계적인 실기실습 및 현장경험을 통한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토탈 미용전문인을 양성한다.”⁴³⁾

“21세기의 미용분야를 발전적으로 이끌어갈 역량있는 미용인을 배출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헤어, 피부관리, 메이크업 부분의 교육과정을 적절히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미용분야의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미용학, 보건학, 피부과학, 색채학, 화장품학, 영양학 등 이론 학문분야의 과학적인 교육을 통하여 건강과 미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있다.”⁴⁴⁾

미용 교육 목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으로는 주로 “능력과 소양을 갖

41) 안산1대학 간호·보건계열 뷰티아트과 교육목표.

42) 마산대학 뷰티케어과 교육목표.

43) 대전보건대학 보건계열 피부미용과 교육목표.

44) 원광보건대학 보건계열 미용피부관리과 교육목표.

출 전문 미용기술인 양성” 및 “다양한 미용 기술 습득”이 그 교육 목표의 주가 되고 있다. 또한 다가오는 21세기를 향한 전문화된 국제적 감각과 특히 여성 인력의 양성을 위한 부분 또한 과학적 이론에 근거한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전문대학 미용관련학과는 교육목표로 “전문 지식과 다양한 기술을 습득함”과 동시에 “능력을 갖춘 창조적 전문인 양성”이라고 진술한 곳이 많다.

특히 첨단 과학 현대 과학과 예술에 바탕을 둔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전공 학문을 교육함으로 미용에 관한 총체적인 전문 지식과 실기 습득은 그 내면에 깔린 공통적인 내용이었다. 교육분야로는 대체로 헤어 디자인, 피부관리, 메이크업, 네일관리 등 토탈 뷰티 아티스트가 될 수 있도록 교육 시킴을 내포하고 있다.

급진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인류 문화의 발달로 인하여 미용생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향유하려는 인간의 소망과 경제 성장에 따른 사회의 질적 변화는 이에 따른 합리적인 관리 및 미용술, 기술을 습득함을 목표로 하므로 이에 전문 대학에서의 역할을 체계적인 이론교육과 최첨단 기자재를 이용한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이론적 소양과 실질적 능력을 겸비한 미용 아티스트 양성에 그 목적을 두고 교육목표와 과정이 구성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교육목표상에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발견된다. 즉, 전문대학과정을 마친 미용인이 미용지도자로 발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영자로서의 관리 능력 및 자질 함양을 목표로 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전문대학에서는 그러한 표현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또한 미용의 궁극적인 목적추구에 부합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인간의 심미적 추구를 목표로 하거나, 예술적 소양의 함양을 목표로 할 필요도 있을텐데도 이러한 목표를 정한 학교가 드물다는 문제점이 있다.

제 2 절 교육과정상의 문제

I. 교육과정 구성상의 문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문대학별 총이수학점은 대체적으로 83학점내지 104학점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⁴⁵⁾ 그런데 이 학점의 범위내에서 편성되는 전공과목의 경우, 교과목 명칭이 통일되지 않은 문제점, 전공필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과목별 주당 교육시간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하에서 각각의 경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로, 교과목 명칭이 통일되지 않은 문제다.

전공과목중에는 동일한 내용이 교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목의 명칭이 서로 달라서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헤어미용분야 과목으로는 「모발미용학」과 「두발미용학」, 「스캘프&헤어케어」와 「두피와두발관리」, 「헤어세팅및업스타일」과 「헤어세트」 또는 「업스타일」 등이 있다.

또한 「세트이론및실습」의 경우와 같이 과목명 뒤에 「이론과 실습」을 붙인 경우도 있고, 「헤어세트」와 같이 붙이지 않은 경우도 있다.

피부미용분야 과목으로는 「피부관리 이론및실습」과 「에스테틱 이론및실습」 또는 「스킨케어」, 「살롱에스테틱」과 「살롱트리트먼트」 또는 「피부살롱 트리트먼트」, 「바디트리트먼트」와 「전신관리」, 「손·발관리」와 「핸드&풋 마사지」, 「두피관리실습」과 「스캘프트리트먼트」 등이 있으며, 기타 과목중에는 「발관리요법 이론및실습」과 「발건강관리 이론및실습」, 「경락요법 이

45) 양복희, 전계논문, p.21.

론및실습」과 「미용경락관리」, 「색채학&일러스트레이션」과 「색채학」 또는 「일러스트레이션」 또는 「뷰티일러스트레이션」, 「소독법과 전염병학」과 「소독법」 및 「전염병학」, 「미용과 건강」과 「미용건강증진학」, 「화장품학」과 「화장품과학」, 「해부생리학」과 「생리해부학」 또는 「인체생리해부학」, 「모발생리 이론및관리」와 「모발생리학」, 「미용마케팅관리」와 「뷰티마케팅」 등이 있다.

둘째로,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의 기준이 불분명한 문제다. 동일한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따라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으로 서로 다르게 채택된 사례가 있어 과연 전공필수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즉, 공중위생학관련과목을 일부학교는 전공필수로하고 일부학교는 전공선택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이론및실기과목의 경우 그 수준별로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의 기준이 없다. 예를 들어 「피부관리이론및실습2」라고 하는 과목은 일부학교에서는 전공필수로, 일부학교에서는 전공선택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주당 교육시간의 차이에 따른 문제다. 실습과목의 경우 동일한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따라서 2학점 또는 3학점으로 편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피부관리 이론 및 실습1」의 경우, 경북대학은 3학점(이론 2시간+실습 2시간)으로 하고 있으나, 강릉영동대학과 경도대학 등은 2학점(이론 1시간+실습 2시간)으로 하고 있다. 또 「해부생리학」의 경우는 3학점으로 구성하고 있으면서도 주당시간을 3시간 또는 4시간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색채학」은 이론 2시간인 학교(강릉영동대학), 이론 3시간인 학교(동우대학), 이론 1시간에 실기 2시간(2학점)인 학교(경북대학) 등으로 다양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Ⅱ. 교양과정에 관한 문제

미용관련 학과의 교양과목은 일반교양과목과 미용관련 교양과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일반교양과목은 다시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교양필수과목으로는 직업윤리, 한문의 이해, 생활영어, 컴퓨터 이해와 활용, 실용컴퓨터, 사회봉사 과목 등이 채택되고 있다.

또한 교양선택과목으로는 인간관계, 자기표현법, 한국전통문학의 이해, 예술과 문화, 인간과 환경, 언어와 생활, 전문인의 창조적 사고, 실용영어, 기초생활영어, 생활영어회화, 영미문화와 영어, 일어, 중국어, 철학, 심리학개론, 실용컴퓨터, 체육, 운동과 건강, 운동과 레크레이션, 인성교육, 직업윤리, 윤리, 기독교의 이해, 전산개론 등이 채택되고 있다.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교양과목으로는 식품과 건강 등이 있다.

그런데, 이들 과목중에 철학, 심리학개론 등의 과목은 소수의 학교만이 채택하고 있으며, 외국어회화와 전산과목이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교양과목이다.

Ⅲ. 전공과목에 관한 문제

전공 기초 과정의 경우 교양 과정과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전문대학이 이수하고 있는 전공과목으로는, 미용학개론, 피부과학, 퍼머넌트, 생리학해부학, 소독법 및 전염병학, cut실습, 메이크업, 피부관리 이론 및 실습, 공중보건학, 위생법규, 영양학, 교육학개론, 특수분장, 화장품학, 염색 및 탈색, 일러스트레이션, 코디네이션, 드라이 및 업스타일, 사진학, 미용경영학, 현장실습, 한방미용 등으로 주로 법정기준에 일치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과목들은 학교에 따라 다양하였다. 또한 전공 선택과 전공 필수 기준이 불분명했으며, 각 학교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주요 전공 교과목의 수와 명칭이 학교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이수학점 범위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등,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공 필수인 경우 필수로 선정하고 있는 과목의 수는 다양했으며, 대부분의 대학이 채택하고 있는 교과목은 미용학개론, 피부과학, 퍼머넌트 실습, 생리학해부학, 소독법 및 전염병학, cut실습, 메이크업실습, 피부관리실습, 공중보건학, 위생법규, 색채 및 일러스트레이션, 영양학, 화장품학, 염색 및 탈색, 코디네이션, 드라이 및 업스타일, 미용경영학, 한방미용 등 전문성을 강조하는 과목이었으며, 매우 다양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 3 절 졸업 후 자격취득 및 진로에 관한 문제

I. 취득자격증에 관한 문제

미용관련 학과 졸업자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미용사면허」를 받게 된다.⁴⁶⁾

그 외에 미용관련 학과와 관련하여 취득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국제 피부관리 자격증(CIDESCO), 메이크업 분장사 자격(민간자격), 피부관리사 자격(민간자격), 네일자격(민간자격) 등이 있다.⁴⁷⁾

현재 우리 나라에서 인정하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과 민간자격이 있다. 자격이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인정된 지식·기술의 습득정도로써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⁴⁸⁾ 그리고 「국가자격」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하며, 「민간자격」은 “국가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이러한 자격제도의 운영 기본방향은 첫째 직업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둘째 산업계 수요에의 부응, 셋째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다양성과 창의성 제고, 넷째 평생학습·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 다섯째 자격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산업계의 새로운 수요창출로 인해 미용과 관련된 민간자격은 날로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민간자격의 효용에 관한 점이다. 전문대학을 비롯한 일정한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이수한 자들에게는 미용사면허가 부여되기 때문에 미용사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46)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제4장 제4절에서 설명한다.

47) 양복희, 전개논문, p.33.

48) 자격기본법 제2조 제1호.

여기서는 논의할 실익이 없다. 그러나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대우는 국가기술자격과 달라서 그 법적인 대우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민간자격의 경우는 공인 받은 경우와 공인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비공인의 민간자격의 경우는 그 대우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공인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민간자격의 검정 기준·검정과목·응시자격 기타 검정수준이 당해 국가자격의 경우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할 경우의 범위 안에서 공인된 내용에 따라 당해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있다.⁴⁹⁾

그러나 현행 민간자격의 경우 자격기본법에 의한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49) 자격기본법 제27조 제1항.

Ⅱ. 졸업 후 진로에 관한 문제

미용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에 전공과 관련된 직업으로 주로 피부관리사, 헤어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미용학원 강사 등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그 외에 화장품 회사, 살롱경영자, 광고업계, 방송국, 기술학교 실기교사, 교육강사직, 특수분장사, 네일 아티스트, 웨딩스튜디오, 코디네이터, 피부관리 및 성형외과 부설 관리실, 예식장 웨딩샵, 헤어드레서, 뷰티 컨설턴트, 발 관리사, 미용관련 연구기관, 미용전문 신문사, 미용담당 및 판매사원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⁵⁰⁾

전문인으로 미용실에 근무할 경우 「미용사면허」를 발급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피부관리사로서 근무하는 데에도 자격상 제한은 전혀 없다. 다만, 피부미용실의 경우 이를 공중위생영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자유업으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중위생영업으로 볼 경우 「미용사면허」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의 개설과 업무가 가능한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상 당연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유업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아무런 자격제한이 따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자 또는 종사자의 자격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영업의 경계가 의료법과 저촉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법과의 이해의 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졸업생이 직접 피부 관리실 또는 미용실 등의 Beauty Salon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설자에게 미용사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개설의 절차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⁵¹⁾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여성의 바램이며 인간성 본능이라 할 수 있으며, 미용은 예술인만큼 다양한 방면의 지식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며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학문적 뒷받침에 의해 발전해야한다고 강조하고

50) 양복희, 전제논문, p.35.

51) 영업소의 개설절차를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는 2002년 8월 26일자로 개정되어, 종전의 통보제는 폐지되고 신고제로 전환되었다.

있으며, 이와 같은 학문적 뒷받침과 함께 헤어, 피부, 네일의 구조와 손질 미용의 경영등 미용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마친 후에는 비로소 미용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미용 교육을 마친 후에는 창조적 스타일을 추구하는 헤어스타일 리스트, 얼굴의 결점 커버와 개성을 표현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네일을 손질하고 아름답게 하는 네일 아티스트, 피부 관리실의 에스테티션, 화장품 회사의 미용 연구인, 학교나 학원의 강사 등으로 진출, 그 외에 메이크업 헤어와 스타일을 전체적으로 코디네이션하는 감각있는 코디네이터등 미용인은 다양한 분야로 그 진로를 찾아 나아갈 수 있다.⁵²⁾

이와 함께 전문 대학 학생들의 역할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단 시간에 많은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지라도 대학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기본적인 이론 즉 모발 생리, 기법 및 원리, 두발 제품의 성분등 정확한 이해와 기술을 바탕으로 무한한 가능성과 여타의 응용성 즉 컴퓨터 도입으로 인한 고객 관리 및 헤어 디자인 창출, 경영 관리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학습으로 미용의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해야 할 것이다.⁵³⁾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문 대학이라는 제한된 특성으로 인해 전공 분야에 맞는 계속된 교육의 기회가 없고, 이들이 전공과는 상이한 타 분야에서 학력만 높일 뿐이며, 이에 따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계속된 교육의 기회 확충이 시급한 실정에 있으며,⁵⁴⁾ 중견 직업인으로서의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분야의 전반적인 기본 흐름을 습득하는 1년 과정을 보낸후 각자의 전공을 선택하게 하여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또 각자의 전공 분야 자격증 또한 분리된 분야로 나뉘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문 대학 교육 과정을 모두 수료하면 전공 자격증과 함께 최소한 중간 기술자 정도의 기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어야 하며 그것이 곧 학생들의 진로 결정과 미래에 대한 비전 및 자신감을 갖게하며, 전문성을 키우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⁵⁵⁾

52) 신지현, "전문대학 미용관련학과의 발전화방안", 한국미용학회지 제5권 1호, 1999.

53) 권영자, 전계논문.

54) 구자영·장문정, 전계논문.

55) 김한식, "전문대학 미용관련 학과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교육과정 모형 개발에 관

제 4 장 우리 나라 미용교육 커리큘럼의 개선방안

최근 전문대학을 둘러싼 다양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는 전문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대학을 둘러싼 대표적인 환경 변화로는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과학기술 및 정보화의 발전, 산업·직업구조의 변화, 평생학습사회의 도래 등을 들 수 있다.⁵⁶⁾

미용 관련 학과의 분야별 적절한 교육 및 산업체 현장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현실적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미용관련 교육기관의 교육목표 및 철학, 교육과정, 교육내용, 졸업 후 진로 등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제 1 절 교육목표상의 개선방안

교육과정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하는 지식의 본질과 선정에 관한 문제, ‘그것을 왜 가르치는가’하는 지식의 정당화에 관한 문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련된 교수-학습상의 방법론적인 문제, 그리고 ‘가르친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하는 평가상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⁵⁷⁾ 따라서 교과과정에는 철학과 목적이 명백히 진술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 연구,” 광주여전문대논문집 3, 1995.2.

56) 이정표, “전문대학에서의 선행학습 평가인정제의 구축 운영 방안”, 교육인적자원부, 2001, p.11

57) 진영은 외, 교육과정과 교과평가의 탐구, 학지사, 2002, p.109.

미용관련학과의 교육목표에서 일반적인 목표로는 전문기술인 양성, 중견 직업인 양성, 창조적 사명감과 예술적 소양 고취, 전문인양성 및 자격취득, 지도자로서의 사명감과 윤리관 함양 등이 진술되고 있다. 미용교육의 목표에 관한 개선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현행 전문대학에서의 미용교육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는 미용지도자 양성에 있음을 교육목표상에 밝힐 필요가 있다. 전문대학의 교육목표가 중견 직업인의 양성에 있다고 하나, 미용계에 있어서는 학문적으로 무장되고 체계화된 미용지도자의 양성이 주요한 목표중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교육목표상에 아예 그와 같은 진술을 함으로써 그 목표를 명백히 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로, 기능위주의 교육목표에 예술적 소양의 함양도 포함시킴으로써 '기술로서의 미용'이 아닌 '예술로서의 미용'으로 승화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미용은 기능적 요소와 예술적 요소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분야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두 가지 요소가 고르게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겠지만, 전문대학과정에서는 오히려 예술적인 요소를 더욱 강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제 2 절 교육과정상의 개선방안

전문대학의 미용관련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헤어, 메이크업, 피부관리, 네일을 포함한 손·발관리분야 등 많은 분야로 진출하는데 있어, 이들이 단기 교육을 이수한 학원생보다 질적인 대우를 받는 미용 전문가로 인식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⁵⁸⁾ 따라서 미용계의 여러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미용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교육 등을 기초로 하는 특성화 방안을 개발하여 경쟁력 있는 교과과정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이론 및 실습 과정을 비교 분석해 볼 때 사실상 이론 수업이 더 많고 실습 과목 평균치를 교육 과정 편성상 타당한 비율을 고려하도록 요구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각 대학의 편성 비중이 많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이 과연 전문인으로서 그 기술적 효과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며,⁵⁹⁾ 각 대학마다 헤어, 피부관리, 메이크업, 네일 관리 비중이 많이 달라 이러한 교과 과정 운영이 과연 효과적인가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제는 인력의 출신 학과를 중심으로 졸업 후의 직업에서 요청되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분석과 개발⁶⁰⁾에 보다 높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미용관련 산업 현장의 특성에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과목의 채택이 필요한 것이다.

58) 신지현, “전문대학 미용관련학과의 발전화방안,” 한국미용학회지 제5권 제1호, 1999.

59) 신지현, 전개논문.

60) 권영자, “전문대학 피부미용과 교육과정 수정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제1권 제1호, 1995.

I. 교양과정

교양교육은 영어의 general education(일반교육)을 번역한 말이지만 또한 liberal education(자유교육)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일반교육은 전문교육(special education)에 대비되고, 자유교육은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에 대비된다는 점에서 그 강조되는 점에 차이가 있다.⁶¹⁾

자유교양교육은 서양 고대 희랍과 로마에서 물질 생활을 비롯한 세간의 소사에 얽매이지 않는 여유를 가지고 있는 시민 계층이, 생업의 수단을 획득하는 요령을 전달하는 목표를 추구하지 않고 인간의 본성인 인성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조하던 데에서 나온 것이다. 즉 교양교육은 인간의 마음을 무지와 편견으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이성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는 자유인을 기르는 교육이다. 직업과 같은 특정한 목표로부터의 자유로움은 특정 정치이념, 사회사상, 윤리의식의 고취 등을 주입하려는 목적에 종속되는 것을 부정하는 입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개방성은 비판적 지성의 연마를 가능케 하는 필수적인 전제라 할 수 있다. 지식의 전수가 자유교육의 정신에 의거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비판적 지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⁶²⁾

교양과목은 교육내용이 한 특정 분야에 치우침이 없이 구성되어야 한다. 인간은 知情意 전 영역에 걸쳐 자신에게 내재된 소질을 계발하여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향유함으로써 삶의 내용을 풍부하게 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이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교양교육이다.⁶³⁾

전문인으로서, 혹은 직업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상상력은 전문화된 교육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과학, 인문과

61) 이명한, “대학교양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대학교양교육의 목표와 개선 방안」, 중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제66회 연구발표회 자료집, 1996, p.2.

62) 이태수, “대학교양교육의 이념”, 김남두·김영식(편), 대학개혁의 과제와 방향, 민음사, pp.102-104.

63) 이태섭·최양미, “안양대학교 교양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안양대학교논문집 제18·19집(인문과학편), 안양대학교, 1999, p.218.

학, 사회과학과 예술과목간의 조화가 이루어진 폭넓은 교육(pluralistic education)에 의해 길러지는 것이다. 현재의 사회는 그 어떤 때보다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 지식의 양 자체가 많아지고, 기존 지식의 폐기 속도가 빠르고 지식의 동적 성격이 강한 사회이므로, 이미 갖춘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계속 획득하는 재교육을 통해서만 성공적인 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좁은 전문분야의 지식을 전수하는 것은 곤란하며, 앞으로 직업 생활 내내 해당 분야의 새로운 지식에 계속 접할 수 있는 바탕 역량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교육내용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즉 교양교육이 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과과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의미이다.⁶⁴⁾

현재 각 대학의 미용관련과는 대체로 보건계열로 되어 있으며, 각 대학의 특성화에 따라 실질적으로 학과명칭이 다양하지만, 이들 학과의 교양과목 편제를 보면, 대체로 1학년에 편중되어 있어 상급 학년에서 교양과목에 대한 필요성을 깨달아도 이수할 수 없는 아쉬움을 갖게 한다.⁶⁵⁾

따라서 교양과목은 자유, 평등, 합리성 세 가지의 기본 가치에 기초를 하여서, 효과적인 사고력, 사고의 전달능력, 적절한 판단력, 가치변별능력 등을 목표로 한 과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변화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과목이 중점적으로 채택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64) 상계논문, p.218~219.

65) 양복희, 전계논문, p.38.

II. 전공과정

전공(major or concentration)은 대학교육과정의 핵심적 요소로서 교육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전문분야에 사회화(socialization)되는 것이며, 그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응집시켜 설계해 놓은 것이 전공교육과정이다.⁶⁶⁾ 원래 미국에서는 학과나 전공이 교양보다 늦게 나타났다.

대학에서 본격적인 전공 분야별 교육과정이 나타난 것은 1824년 T. Jefferson의 계획에 의해 최초로 Univ. of Virginia에서 처음으로 8개의 전공분야(의학, 고대어, 현대어, 자연철학, 수학, 과학, 도덕철학, 법학)를 설치하고 이 가운데서 적어도 3개 분야를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에서 출발하였다.⁶⁷⁾ 그리고 Harvard 대학에서는 1825년 최초로 학과(department)를 설치하고, 여기에 교수를 두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 나가는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이 때부터 50년간 1875년까지 고전자유학문적 교육과정과 전문직업교육과정 사이에 극심한 대립을 보였다. 그리고 1876년 독일대학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신진학자들이 독일대학에서의 박사과정 정과(正科)와 부과(副科)제도를 Johns Hopkins대학의 대학원에 전공(major), 부전공(minor)의 용어로 바뀌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⁶⁸⁾

전공은 학생들을 특수한 사고체계, 특수한 상징체계 및 교과목에서 필요한 특수한 기능을 획득하는 기회에 접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실제적으로 대학에서의 전공은 고등학습이나 특정직업의 준비를 위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전공과목에 대한 만족과 집착도 많지만 약점도 존재한다. 즉, 첫째 전공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경우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가 없다는 점, 둘째 전공의 폭이 좁아 간학문적(interdisciplinary)관심을 충족시켜 줄 수 없다는 점, 셋째 전공은 비전공 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과목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이 제기되고 있다.

66) 이성호, 대학교육과정론, 서울:연세대학교 출판부, 1987, p.68.

67) 이성호, 상계서, p.41.

68) Levine A., Handbook on Undergraduate Curriculum, San Francisco:Jossey-Bass, Inc., Pub, 1978, p.30.

전문대학 미용관련 학과의 교과과정상에는 교양과정보다는 전공과정을 더욱 중시하여 학점 배정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런데, 전공과목은 그 수가 방만하게 나열되어있고, 과목 명칭이 비슷비슷하여 혼동을 자아내며 주요 전공과목들은 학년과 학기가 변하여도 한가지 명칭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과목의 특성이 부각되지 않는 반면 오히려 학점이 적은 학과목들은 과목 명칭이 그대로 나열되어 있어 분과적인 교육과정 모형 같은 인상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전공과목 명칭의 표기방법, 내실 있는 과목의 통폐합을 위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교육강화를 위한 학과목의 삼입 또한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미용학이 주요 고유학문으로 발전되기 위해 학문의 영역에 대한 한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⁶⁹⁾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이 전공과목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전공과목은 시대의 흐름에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기술 교육이 강조되는 전문대학에 있어서는 낡은 구시대의 기술은 학습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새로운 패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과목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목의 중복을 배제하여야 한다. 현행 전공교과목은 동일한 명칭으로 단계만을 정해 여러 학기에 걸쳐 이수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같은 과목이면서도 명칭만을 달리하여 중복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모순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교과목의 내용에 맞는 표준 명칭을 개발하여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공 공통필수과목의 개발이 필요하다. 미용관련학과의 전공별로 반드시 이수해야할 공통필수과목을 개발하여 적용해야한다.

넷째, 전문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교육, 즉 현장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수준의 실질적인 과목으로 선정하여 보다 과학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교과과정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69) 양복희, 전개논문, p.39.

Ⅲ. 선택과목

전문대학은 대체적으로 선택과목의 선택여지가 좁다는 특성이 있다. 즉, 대부분의 대학이 학점 배당에서 명목상의 선택과정을 들 뿐이고, 교육과정 내용상으로는 전공과정의 연장인 것이다. 또한 몇 개의 과목 중 택하는 것이 아니고 단일 과목을 개설하여 필수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택과목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논한다는 것은 무의미할 수도 있겠으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당위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전문대학 미용관련학과에서는 전공별로 한 분야가 다른 분야와 유기적 연관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선택과목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즉, 전문대학이 한 가지 기술만을 집중하여 가르침으로써,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교육에 소홀해 질 수 있고, 그럴 경우 이른바 '과학적 야만'(scientific savary)에 이를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서 학생들이 장래취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취업과 관련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배려해야 할 것이다.⁷⁰⁾

이러한 취지에서 선택과목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70) 전공분야를 특성화시킨 이론과목과 실습을 극대화시켜 학생들이 졸업후 현장에서 필요한 이론 및 기술력 향상에 주력하며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김춘일·송선영, "전문대학 미용관련학과의 발전방안", 제주한라대논문집 23, 1999.12, p.160.].

제 3 절 미용관련 학과의 발전방향

I. 미용관련 전공의 전문화·세분화

학문은 심화과정을 거치면서 전문화·세분화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미용교육 분야도 마찬가지다. 양적으로 또는 질적으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미용교육도 전공별로 분화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현 시점에서 미용관련학과의 전문과목을 나누자면 헤어미용, 피부미용, 메이크업 등이 전부다. 그러나 향후에는 칼라링전공, 네일전공, 헤어과학전공, 미용경영전공 등 다양하게 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전공에 걸맞는 자격의 개발도 병행되어야 한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국가기술자격 및 면허로는 미용사국가기술자격과 미용사면허가 유일한 실정이지만, 이를 세분화해서 미용전공의 세분화 및 전문화 추세에 부응하게 해야 할 것이다.

II. 현장 교육의 강화

전문대학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는 대학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자질을 계발하고 능력을 배양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서 행복을 추구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따라서 교과과정은 그 과정의 충실한 이수 결과로 산업 현장의 해당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 수 있게 해야 한다.

전문대학 졸업 후 곧바로 실무에 임할 수 없는 수준에 머무는 교육이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전문대학교육 학업의 성과만으로 실무능력이 충실하

게 배양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현장교육의 강화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실무능력 중심의 연계교육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면, 교과과정 편성시에 실무계의 요구(needs)를 충분하게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술수준이 급변하는 실무현장의 실태를 빠르게 파악하고, 그러한 변화를 교육에 반영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즉, 현장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하여 대학교육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Ⅲ. 산학협동의 활성화

산학협동은 일자리 확보라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실무계의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교육내용의 충실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미용관련산업과의 긴밀한 산학협력을 통한 산학 연계 시스템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산학협동은 일찍이 1969년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 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미용 산업 분야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미용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인력을 교육하여 현장에서 즉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체와 전문대학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산학협동 체제의 강화는 현장 기술의 향상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⁷¹⁾

따라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양성에 부응하는 실기의 현장교육과 전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에 중점을 둔 교과과정의 개편과 대학의 입장에서 가능한 산업체의 실질적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산학협

71) 김춘일·송선영, 전개논문, p.160.

동 분야를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단순한 협력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자매결연 등을 맺어 교수의 산업체 직무연수 등을 통해 실습교육의 내실을 기하며, 학생들의 현장실무연수 및 산업체 인사 겸임교원제도 도입 등으로 학교교육과 현장교육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V. 계속 교육의 확대

전문대학 졸업생과 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직업인의 계속교육의 기능은 보다 발전하는 산업사회에서 각 분야의 깊이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급변하는 사회에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전문직업인의 양성과 질적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따라서 계속교육의 확대방안은 미용전공 분야의 실습과목의 확대와 미용분야의 고급과정을 중심으로 계속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전문대학 졸업 후 산업현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다. 경제적, 시간적 및 육체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또한 충실한 교육내용을 갖춘 기관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대체적으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재교육과정은 학원이나 일부 산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인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 부분에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일반 대학의 사회교육원 또는 대학원에서 평생교육차원의 계속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즉,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에 미용관련 전공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고학력 시대에 단지 재교육만을 시행하는 차원의 사회교육원을 이수할 것이 아니라 학위도 받고 재교육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중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재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겠다.

즉, 재교육과정을 현재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내에서 수용하여 잘 구비된 시설 및 우수한 교수진을 활용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둔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 하겠다.

제 4 절 면허 또는 자격취득에 대한 개선방안

전문대학 또는 4년제대학의 미용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고등기술학교 또는 고등학교 미용과를 졸업하게 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미용사면허」를 받게 된다.⁷²⁾ 즉,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졸업증명서 1부와, 정신질환자, 간질병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및 결핵환자에 각각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건강진단서 1부, 그리고 최근 6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2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도지사 또는 해당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다.⁷³⁾

그런데, 문제는 상기 교육기관 졸업생들의 전공과 미용사면허의 관계를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을가에 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법상의 미용사면허를 어떻게 성격지을 것인가의 문제부터 살펴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미용사면허를 「토탈미용의 면허」로 새기자는 견해와 「헤어미용분야의 면허」로 새기자는 견해가 대립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견해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대학의 전공과 면허에 대한 새로운 관계정립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72)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제1호에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제2호에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제3호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이상 미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73)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참조.

첫째로, 미용사면허를 「토탈미용의 면허」로 보는 견해에 따른다면, 미용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충실도라는 점에 문제가 제기된다. 즉, 향후 미용관련학과가 「헤어미용전공」, 「피부미용전공」, 「메이크업전공」 등으로 세분화 전문화될 경우, 각각의 학과의 교과과정이 과연 토탈미용의 내용을 충실히 채울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둘째로, 미용사면허를 「헤어미용의 면허」로 보는 견해에 따른다면, 이 경우 미용사면허는 「헤어미용전공」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만 유효한 면허가 된다는 결론이 되어, 비록 미용과 관련한 학과를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헤어미용」을 전공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미용사면허 발급은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한편, 현행법상 미용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면허는 「미용사면허」가 유일하다. 피부미용과 메이크업과 관련한 면허는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 기술자격제도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행제도상으로는 미용관련학과가 다양한 전공으로 세분화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차원에서 시혜적으로 부여하는 면허는 유일하게 「미용사면허」만 부여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학과가 다양하게 재편되는 실정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즉, 미용사면허를 토탈미용의 면허로 보는 헤어미용의 면허로 모든 미용관련 학과에서 동 면허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시간 수의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시행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서 다양화하는 민간자격증과 교과과정과의 연결을 모색하여야 한다. 피부미용과 관련한 국제적인 차원의 자격증과 민간자격, 그리고 메이크업과 관련한 민간자격들, 그 외에 네일아트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과 관련한 교과과정 편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제 5 장 결 론

오늘날 한국에서의 미용교육은 학문적 차원의 전문화와 더불어 양적인 팽창기를 맞고 있다. 전문대학의 미용학과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나아가 4년제 대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미용고등학교가 설립될 정도로 교육 대상의 폭이 날로 넓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들 미용교육기관의 교육과목은 대체적으로 헤어미용, 피부미용,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세분화·전문화 과정을 겪고 있으나, 아쉽게도 이러한 교육과정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전문대학 교육과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첫째로, 교육목표를 미래지향적으로 정하지 못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둘째로, 학과명칭에 관한 문제다. 전문대학의 미용관련학과 졸업생에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여 「미용사면허」가 부여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일견 전문대학은 토털미용 교육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과명칭을 다양하게 표시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로, 교과목 명칭에 관한 문제다. 교과목 명칭도 동일한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표준화되지 아니한 채 학교마다 차이를 두고 있어 혼란을 보이고 있는 문제가 있다.

넷째로,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의 기준이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전공필수과목으로 채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전공선택과목이 되고 있는 등, 전공필수와 선택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다섯째로, 주당 교육시간의 차이에 따른 문제가 있다. 동일한 실기과목

인데도 일부학교에서는 2학점으로 이론1시간, 실습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다른 학교들에서는 3학점으로 이론1시간, 실습3시간으로 구성되는 등 일정한 표준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현행 전문대학에서의 미용교육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는 미용지도자 양성에 있음을 교육목표상에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기능위주의 교육목표에 예술적 소양의 함양도 포함시킴으로써 '기술로서의 미용'이 아닌 '예술로서의 미용'으로 승화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 학과명칭을 교육과정의 내용과 일치하게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헤어미용, 피부미용, 또는 메이크업을 구분하여 전공별로 각각의 교과과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학과명칭도 그 교과과정 내용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준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교과목 명칭의 표준화도 절실히 요청된다. 적어도 전공과목에 대해서는 과목명을 통일해야 할 것이며, 학계의 다양한 연구과정을 통해 표준이 되는 교과내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전공필수과목에 대해서는 각각의 전공별로 일정한 단위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간에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교육시간수에 관해서도 학교간에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로, 체계적이고도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학제간의 교과과정의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즉, 학원 및 고등기술학교에서의 교과과정과 고등학교에서의 교과과정, 그리고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 대학원과정 등 각각의 학제별 수준에 부합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Korea Cosmetology Education Curriculum

Kim, Jin-Soo

Major in Makeup Art

Dept. of Fashion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

Hansung University

This research was attempted in order to raise the actual effectiveness of beauty education by reviewing the problems on beauty education curriculums of junior collages and arranging their countermeasures.

This thesis suggests improvement plans of curriculums in Korean beauty education as follows.

First, one of the main alms of beauty education sought at a junior collage should be verified that it is to raise beauty leaders, Furthermore, by including artistic knowledge on top of skill-based education purposes we shall put more efforts improve and sublimate beauty art, not only as skills but also as art.

Second, it is necessary to fix the department titles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s of curriculums. The titles have to be standardized for the right recognition of each curriculum by dividing beauty into hair beauty, skin beauty or make up with each curriculum based.

Third, it is necessary to standardize major requisite subjects to be completed in certain units by each major among colleges as well as class hours.

Fifth, the curriculum system needs to be revised in accordance with school system for example suitable curriculums for each school system level of private institutes and secondary vocational institutes, high school, junior collage, university, post graduates, etc, I have to be developed and enforced.

참 고 문 헌

- 구자영·장문정, “전문대학 미용계 학과의 학과명칭과 교육과정 수정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제2권 제1호, 1996.
- 권영자, “전문대학 피부미용과 교육과정 수정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제1권 제1호, 1995.
- 김귀정, “대학 미용관련학과의 교과과정 분석 및 학생들의 의식 행태”, 慶山大 保健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99.
- 김복희·남철현, “여성의 피부 미용관리와 화장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大韓保健協會誌 43, 1995.10.
- 김복희·남철현, “여성의 피부미용관리 지식 및 행태와 관련요인”, 韓國保健教育學會誌 15,1, 1998.6.
- 김양혁, “전문대학의 위기와 발전 방안”, 전문대학교육 20, 1996.3.
- 김춘일, “예술 분야 교과서의 자유 발행제”, 教科書研究 34, 2000.6.
- 김춘일, “주요선진국 대학원교육의 성격과 동향” 대구대人文藝術論叢 22, 2001.2.
- 김춘일·송선영, “전문대학 미용관련학과의 발전방안”, 濟州漢拏大論文集 23, 1999.12.
- 김춘자, “국내 피부미용관리사의 교육 및 업무실태 조사”, 梨花女大 教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99.
- 김한식, “미용업의 개선점과 미용관련 전문대학 학생들의 역할에 관한 연구”, 光州女專論文集 2, 1994.2.
- 김한식, “전문대학 미용관련 학과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교육과정 모형 개

- 발에 관한 연구”, 光州女專論文集 3, 1995.2.
- 박인학·이주현,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서울 : 大旺社, 2002.
- 신지현, “전문대학 미용관련학과의 발전화방안”, 한국미용학회지 제5권 1호, 1999.
- 양복희, “2년제대학 미용관련과 교육과정 실태조사”,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양현옥, “미용관련과 교과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水原女專論文集 20, 1994.12.
- 이동수, “우리 나라 특수대학원의 관광관련학과 교과과정 모형설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이명한, “대학교양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대학교양교육의 목표와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제66회 연구발표회 자료집, 1996.
- 이성호, 대학교육과정론, 서울:연세대학교 출판부, 1987.
- 이영탁,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한국교육의 정책방향”, 전문대학교육 21, 1996.6.
- 李源瓊, “전문대학 미용 관련과의 교육과정 Model 연구”, 明知大 教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95.
- 이정표, “전문대학에서의 선행학습 평가인정제의 구축 운영 방안”, 교육인적자원부, 2001.
- 이태섭·최양미, “안양대학교 교양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안양대학교논문집 제18·19집(인문과학편), 안양대학교, 1999
- 이태수, “대학교양교육의 이념”, 김남두·김영식(편), 대학개혁의 과제와

- 방향, 민음사, pp.102-104.
- 李漢雄, “美容師免許制度 改善方案에 대한 提言”, 한국미용학회 포럼, 2000.12.
- 이혜숙, “국내 대학의 호텔경영학과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 世宗大 大學 院 석사학위논문, 1999.
- 이호순, “정보산업종사자 재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소프트웨어 기술인력 중심으로-”, 梨花女大 教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93
- 정경아, “재교육기관으로서의 교육대학원 석사 과정 교과과정 연구 : 영어 교육과를 중심으로”, 淑明女大 教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95.
- 정영수, “미용관련학과의 보건관련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인제대 보건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趙判來, “美容業 従事員(美容師)의 職務滿足에 관한 연구”, 亞洲大 經營大 學院 석사학위논문, 1990.
- 周明鉉, “한국 전문대학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檀國大 教育大學院 석 사학위논문, 1998.
- 진영은 외,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의 탐구, 학지사, 2002.
- 한영숙, “수도권에 소재한 전문대학 미용관련과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만 족도 조사연구”, 한국미용학회지 제3권 1호, 1997.
-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2000.
- Levine A., Handbook on Undergraduate Curriculum, San Francisco : Jossey-Bass, Inc., Pub, 1978
- Zais, Robert S., *Curriculum : Principles and foundations*, Harper & Row, Publishers, 1976.